

1990년도 춘계정기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후기

본 학회의 1990년도 춘계정기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가 4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 안암동 소재 고려대학교 이공대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총회 전날까지 내린 잦은 봄비로 교정의 신록은 더욱 푸르러졌고 양일간 흐린 날씨였지만, 비는 내리지 않아 다행스러웠다. 첫날 아침 9시 30분 부터는 초청특별강연이 열려서 고려대 문탁진 교수의 그간 연구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이어서 독일 막스 플랑크연구소 고분자연구소장인 Gerhard Wegner 박사의 강연이 있었다. 많은 청중이 경청하는 가운데 G. Wegner 박사는 분자건축(molecular architecture)을 통하여 특수한 기능과 성능을 고분자 구조에 부여하는 연구를 수행중인데 우수한 연구성과가 얻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이어서 열린 총회의 개회사에서 안태완 회장은 우리 고분자학회의 발전과 학회사업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특히 작년도에는 IUPAC 국제고분자 심포지움의 성공적인 개최로 세계에서 우리 고분자학회의 위상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축하하였다. 다음에 고려대학교 김진웅총장은 축사에서 법학자인 자신이 차체에 고분자물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고려대의 학내 사정으로 작년에 열리지 못한 본 학술회의가 올해엔 차질 없이 고려대에서 다시 열리게 되어 환영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금년도 고분자학회상의 수여가 있었는데, 학술상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광웅 박사와 경북대학교 김우식 교수에게 수여되었고, 기술상은 고분자 발포제개발의 업적으로 동진화성공업주식회사의 박성문 이 사에게 수여되었다. 학회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50만원의 부상이 수여되었다.

또한 본 학회의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하여준 (주)금호, 대한페인트잉크(주), 화인화학(주)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1989년도의 학회활동과 사업에 대한 회무보고에서 이후성 전무이사는 1억2백만원에 대한 결산내역과 함께 10번의 '폴리머'지 발간, 기기분석세미나, 고분자학계대학, 고분자블렌드특강, 고분자신기술 특강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매년 개최하여 오던 '도료도장세미나'를 시류에 맞게 고분자신기술 특강으로 변경하고 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큰 환영을 받았었다. 본학회가 창립되면서 부터의 숙원인 학회지의 월간화가 금년부터는 달성되어 "고분자과학과 기술"지와 "폴리머"지가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홀수 달에 발간되는 "고분자과학과 기술"지는 고분자과학의 총설과 최신 정보 및 뉴스, 회원 상호간의 학회 소식등을 게재하고, 짝수 달에 발간되는 "폴리머"지는 학술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이번의 연구논문발표회에는 정확히 400명의 회원이 양일간 등록하여서 성황을 이루었고 12편의 특별강연과 100편의 연구논문이 5개의 회장에서 발표되어 고분자과학과 기술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특별강연에서는 외국에서 최근에 귀국한 신진과학자의 연구성과가 심도 있게 발표되었고, 규슈대학 入江正浩교수의 광감응성 고분자에 대한 연구업적도 회원의 흥미를 끌었다. 새로운 특성과 유용한 기능을 갖는 신규 고분자에 대한 연구성과의 발표가 많았지만 업계에서의 연구발표가 적은 편이었다. 첫날 금요일 저녁에 교수식당에서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려 회원 상호간의 유쾌한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본 학회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훌륭한 장소제공을 마련해준 고려대학교 측에 감사드리고 학술회의 진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고려대 재료공학과와 문탁진 교수와 화학과의 진정일 교수, 학생등 회원 여러분께 학회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려대학교 김진웅총장님 축사



특별회원사 감사패 수여